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공인석/김명숙 김순석/임영득 김영애 김정자 김종진/한안나 김춘화 김형국/이오순  
류영철/김정숙 맹지혜 박경자 박복래 배경철/김순화 송부현/김영진 오영순 이기자 이미지 이상현 이춘휘  
장영원/김옥자 장성자 전병구/이인숙 정경순 조규영/윤혜란 조옥자 주경덕/이경자 채희춘/황영옥  
최상길/이미향 최성현/윤정자 최정순 / 30명

☞ **선교현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김기택/배숙자 김만형 김명숙 김순석/임영득 김영진 김정자 김형국 김희규 맹지혜 박권재/송영숙 박복래  
박종삼/이명원 오영순 윤영준/박진숙 윤조훈 이기자 이월숙 이향교 이희환/오희정 장영원 장성자 전병구/이인숙 조옥자  
채희춘/황영옥 천성현/고유림 최성현/윤정자 홍유경 루디아어전도 바울남전도 / 30명

☞ **감사현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래 강영성/신화순 김병욱/이영숙 김수자 김현구/서재희 문영자 민옥희 박부웅/최귀남 박종삼/이명원 염영분 유승용  
이미자 이춘휘 전병구/이인숙 채영엽 천성현/고유림 최선미 최성현/윤정자 최정희 황영옥 황수련 / 22명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김요한 김경엽 김명숙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김혜란 민옥희 박순자 박희영  
박복순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경자 이기자 이소은 이숨에 이인숙 장하람 전병구 정옥순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무 명 양일석 이노을 정승현 / 39명

☞ **월정현금**

## 주간 성경연구

20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이사야 66장 1절 ~ 24절		
월요일	시편 81편 1절 ~ 16절	목요일	시편 84편 1절 ~ 12절
화요일	시편 82편 1절 ~ 8절	금요일	시편 85편 1절 ~ 13절
수요일	시편 83편 1절 ~ 18절	토요일	시편 86편 1절 ~ 17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욱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천옥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방성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전도사	이필래 김요한		
	준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송이 문수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강민주 김미희 김성경 공희라 정희연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철 이성옥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옥희	이집트 : 김진숙 A X 국 : 김혜월 A X 국 : 이분옥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홍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8. 05. 13. 주일 예배 설교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15절

설교자 이진우 목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했다면 정말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다시 점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1.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10절)**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은 결국 그 아들이 죽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죽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꿀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친아들을 내어 주고 양자를 들이는 이런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2. 우리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맞본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맞보고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맞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전염되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 신분과 빈주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른 것이 부족해도, 때론 건물이 낡고,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의 숫자가 적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보이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형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진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SINCE 1975

No. 44 - 20

2018. 05. 20.

##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Senior Pastor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성령강림주일 & 스승의 주일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0분(로템나무)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인도: 김 요 한 전 도 사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아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196(통174)장

다

같

이

(Praise)

성령의 은사를

통 성 기 도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김 형 국 집 사

(3부) 윤 조 훈 장 로

(Prayer)

성 경 봉 독

[1,3부] 이사야 55장 1~13절(구약P.1034)

이 영 속 권 사

(Scripture)

[2부] 예레미야 29장 1~14절(구약P.1096)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

이

(Anthem)

[3부] 그가(우효원)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1,3부] 영적인 해갈을 경험하려면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진실 앞에 바로 서자

김 요 한 전 도 사

헌 금 봉 헌

[1,2,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191(통427)장

다

같

이

(Praise)

내가 매일 기쁘게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오후 3시

사회:(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목

도

성

시

시편 20편 9절

간

구

헌 신 결 의

중고등부 부감

찬

양

찬송가 325(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기

도

청년부부장

성 경 봉 독

이사야 7장 1~9절(구약 p.973)

유초등부 부감

찬

양

설

교

행편인가? 말씀인가?

예 물 봉 헌

기도: 영아유치부 부감 윤숙 권사

특

송

광

고

찬

양

찬송가 210(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축

도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찬

양

기

도

[다음주:이경자권사]

성 경 봉 독

에베소서 6장 4절(신약P.316)

설

교

자녀를 이렇게 키웁시다.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아유치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6:00 로템나무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도특공대	목요일 오후 2:00 제1교육관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